

# 장수 개안사지 왕실사찰급 위상 드러나

### 역사문화권 발굴조사 지원사업 추진... 치미·귀면와·전·막새기와 등 출토

장수군은 역사문화권 발굴조사 지원사업으로 이뤄진 장수 개안사지 2차 발굴조사에서 상당 규모의 사찰 건물터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역사문화권 발굴조사 지원사업은 장수군(군수 최훈식)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조선문화유산연구원(원장 이택구)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탐동마을에 위치한 장수 개안사지는 지난 1차 발굴조사에서도 막새기와와 귀면와 등 중요유물이 출토됐으며, 여러 유물들을 통해 후백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후백제(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건물지 8동, 담장 2기, 석축 6기, 축대, 보도시설, 배수로, 우물, 아귀구(餓鬼口) 등이 추가로 발굴됐다.

무엇보다 사찰건물의 경우 일반건물과 달리 탑, 금당, 강당 등으로 구성돼 있고, 스님들의 생활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이와 관련된 시설과 공간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더해 보도시설은 남북방향으로 경사면을 따라 길게 조성돼 있으며, 보도시설을 중심으로 동쪽에 다수의 건물이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우물 시설과 우물 1기, 승방지의 공간구성 및 실체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확인된 건물보다 선행



장수 개안사지 전경

된 건물의 흔적이 확인되며 명확하지는 않지만 선형건물지에서 확인된 유물을 통해 후백제와 통일신라시대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치미, 적새, 막새기와를 비롯한 방대한 양의 유물이 출토된 점, 아직 사찰의 중심사역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건물의 장식 기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장수 개안사지 사찰은 왕실 사찰과 버금가는 위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길' 13일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오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연당에서 무용단 정기공연 '길'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혼자서, 둘이서, 그리고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주제로,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는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의 예술적 여정을 선보이며, 프로그램에는 연고무(演鼓舞), 호남검무(湖南劍舞), 연흥무(燕興舞), 규장농월(龜牆弄月), 사풍정감(土風情感), 삼색풀이(三色), 대신무(大神舞)가 포함되어 있다.

국립민속국악원 안명주 안무가는 "이번 공연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전통춤의 정수를 보여 주며,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며 "특히,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면서, 우리 춤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예술적 가치를 다



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 관람 예약은 전화(063-620-2329),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배우 고민시 모든 순간 담았다

### 무주산골영화제·백은하 배우연구소, '넥스트 액터 고민시' 출간

6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2024. 6. 5.~6. 9.)가 백은하 배우연구소와 함께 완성한 도서 <넥스트 액터 고민시>를 영화제 개막일에 정식 출간한다.

영화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초여름 낭만 영화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넥스트 액터]로 배우 고민시를 선정해 화제인 가운데, 배우 고민시를 집중 조명하는 도서 <넥스트 액터 고민시>가 오는 5일에 정식 출간된다.

도서 <넥스트 액터> 시리즈는 무주산골영화제와 백은하 배우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넥스트 액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우 박정민, 고아성, 안재홍, 전여빈, 변요한이 차례로 출간되어 국내 영화 팬들에게 애장서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도서 <넥스트 액터 고민시>는 2016년 단편영화 <평행소셜> 공동 연출 및 연기를 시작으로, 2023년 영화 <밀수>,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홈 시즌2>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확신으로 비춘 배우 고민시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담았다.

특히 <마녀> '도명희',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임유리', <시크릿 부티크> '이현지', <스위트홈> '이은유', <오월의 청춘> '김명희', <밀수> '고옥분'까지, 총 6개의 대표 캐릭터를 중심으로 고민시가 직접 작품과 캐릭터를 마주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들려준다. 이어 백은하 소장이 탐구한 고민시 배우가 구현한 연기의 성취와 여러 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문가적 해석이 담겨 가치를 더한다.

뿐만 아니라 <스위트홈> 시리즈의 이음복 감독, <밀수>의 류승완 감독과 극 중 함께 연기했던 박정민 배우, <S24 Hours 무비 시



리즈>를 연출한 한준희 감독이 고민시 배우의 첫인상부터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해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소장 목구를 불러 일으킨다. 여기에 어린시절부터 배우가 되기까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

에 대한 고민시 배우의 진솔하고 방대한 인터뷰가 담겨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완성형으로서의 고민시 배우가 아니라 엄청난 매력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가진 고민시 배우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영화제 기간 중 넥스트 액터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먼저, 6월 6일에는 <오월의 청춘 + S24 Hours 무비 시리즈>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와 무주등나무운동장 야외상영 <밀수> 무대인사가 진행되며, 다음날인 6월 7일에는 백은하 소장과의 배우 고민시의 유쾌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야외토크가 마련된다. 또한 고민시의 다채로운 매력으로 채워진 넥스트 액터 특별전시 [우리는 고민시의 내일이 궁금해]는 무주 최북미술포에서 영화제 전기간동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배우 고민시의 셀프 트레이너 개막식 최초 공개, <넥스트 액터 고민시> 깜짝 책 사인회 등 5일간 '넥스트 액터' 여섯 번째 주인공 배우 고민시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무주투어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과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 이하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일 야간 경관 명소 활성화 시·군 연계 사업인 '청정 자연속 야(夜)밤 무주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투어는 무주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와 야간경관 명소를 연계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참여자는 2팀으로 나뉘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인 반디랜드 탐방, 예체문화관 태권도 시범 공연 관람 등 무주의 주요 명소를 둘러봤다.

이어 반딧불이 탐사를 통해 오직 무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청정 야밤을 돌아 본 후, 납대천교 별빛다리, 한중투 야경투어 등을 진행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야간경관 사업 확장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하반기 수시대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2일까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하반기 수시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수시대관은 공연장과 전시실 정기대관 후 잔여 공간에 대한 선정으로, 대관신청서와 전시(공연)계획서를 누리집에

서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시실은 7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6개월간 매주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공연장은 같은 기간내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의 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장은성 기자

# 박물관 문화향연 '박물관 속 밴드' 국립전주박물관서 개최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국립전주박물관이 함께 만든 박물관문화향연 '박물관 속 밴드' 공연이 오는 8일 오후 3시 국립전주박물관 야외에서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특별전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를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은 미륵신앙의 성지가 되어준 금산사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하는 전시다. 관계자는 "백제 법왕 원년에 창건된 금산사는

초기 미륵신앙으로부터 후천개벽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사상의 성지"라며 "그 장엄함과 신비함을 담아낸 곡 그리고 누구나 신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노래들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구한 세월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공간에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고, 무엇보다 우리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 기쁘다"며 "다양성의 보컬리스트 파승현 군의 고행이기도 해 금의환향하는 느낌으로 멋진 공연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 선화당

### 관풍각

### 내아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흥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